

▲ 9월 25일(木)

科学技術處는 産業情報의 국제화시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로 세분화된 전문 정보센터를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협회, 단체등에 설치,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82년 경부터 이 같은 전문 정보센터를 설치 할 것을 검토중이다.

▲ 10월 3일(金)

科学技術處는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연구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관장하는 업무를 일원화시켜 각종 지원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科学技術處는 민간연구소 설립 신청 업무를 기술개발관실을 통해 받고 민간연구소 설립 추진 협의회를 산하에 두어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10월 4일(土)

政府는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1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모두 파기처로 흡수하는 한편 이를 KIST를 중심으로한 기초과학, 중화학, 원자력등 6개부문의 대단위 연구소로 개편할 방침.

▲ 10월 6일(月)

제 2회 李輝昭박사 추모 物理学講座가 9일까지 4일간 서울대학교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 강의와 일반 강의로 실시된 이번 강좌에는 73년도 노벨물리학수상자인美国의 LEON N. Cooper 박사(美브라운대 석좌교수)가 연사로 초빙됐다.

▲ 10월 7일(火)

제11회 韓國電子展覽會가 영동 한국종합전시장서 개막됐다. 전자공업진흥회 주최로 16일까지 열린 이 전시회에는 국내 1백65개업체와 美, 日, 캐나다 등 8개국에서 214개업체가 출품한 3백65種 5만 8천 8백20점의 전자 기자재가 전시됐다.

▲ 10월 8일(水)

太陽에너지展示會가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국내 17개업체와 美, 日 등 4개국 13개의 외국업체에서 출품한 45種 3천여점의 태양에너지 기자재가 전시된 가운데 개막됐다.

▲ 10월 9일(木)

科学技術處는 두뇌집약형의 정보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집중육성키 위해 이달말까지 정보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마련, 이미 컴퓨터의 이용극대화를 위해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 공동운용이 가능토록 코드의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행정 및 과학기술, 산업, 복지후생등에 관한 각부문별 이용시스템 개발을 강화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 제공할 방침이다.

▲ 10월 10일(金)

1980년도 노벨의학상은 유전학과 인체면역분야의 연구로 인체조직이식술에 공헌한 美国의 「바루프 베나세라프」박사(57) 「조지·스넬」박사(76), 그리고 프랑스의 「장·도세」박사(63) 등 3명의 의학자에게 돌아갔다고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학회가 발표했다.

▲ 10월 11일(土)

政府는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2월官民합동으로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를 설립키로 했다.

民間 45억원, 政府 30억원등 75억의 자본금으로 출범할 이 회사가 설립되면 기업 및 각종 연구소의 기술개발, 외국의 기술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 10월 13일(月)

2000年代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

서울特別市가 大韓国土計劃學會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美, 日, 英, 서독등 15개국의 도시계획전문가 및 행정 실무자 30여명이 참가, 토론과 공동작업을 통해 中·短期別懸案問題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 10월 15일(水)

스웨덴왕립과학원은 1980년도 노벨물리학상은 대폭발에 의한 우주생성론을 뒷받침하는 소위 「피치·크로니효과」를 발견한 美시카고대학의 「제임스·크로닌」교수(49)와 프린스턴대의 「블·피치」교수(57)에게 돌아갔으며 노벨화학상은 「데옥시리보」핵산 즉 DNA의 신비를 규명하여 암세포연구에 기여한 美스탠포드대의 「폴·버그」교수(54), 하버드대의 「월터·길버트」교수(48) 및 英國 케임브리지대의 「프리데릭·생거」교수(62) 등 3인에게 공동수상된다고 발표했다.